

이슬람과 한국 교회



김승욱 (발행인)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번 호는 이슬람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달의 표지인물도 이슬람 전문가인 공요셉 (예명)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는 수단의 움두르만 대학교에서 꾸란의 음성학적 연구로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과전을 받아 요르단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면서 한국을 알리는데 공헌을 하여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기독교인의 아랍어와 무슬림의 아랍어 간의 차이를 연구하며, 아랍 신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란과 아랍어 성경의 의미와 해석> 등 많은 이슬람 관련 서적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활동과 학문 세계를 소유정(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교수가

인터뷰 했습니다. 이어 공요셉 박사의 칼럼 “이슬람 근본주의, 살라피 운동과 한국의 이슬람”을 통해 한국 사회가 무슬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습니다.

이슬람과 관련된 주제는 송인규 교수가 “이슬람에 대한 책갈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 논쟁으로 무슬림이 믿는 “알라”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등한 신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글은 손봉호 대표주간의 “종교 다원주의와 타 종교 존중”의 글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이슬람 사원이 보이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전경.

둘째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최근에 IS 등 과격 이슬람 단체들의 테러로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외국인 근로자나 난민신청 등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 특히 한국 기독교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을 선교대상으로 여기고 포용해야 한다는 시각과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해야 하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과 타 종교에 대한 관용과 배려를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 들어와있는 이슬람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합동 측 이슬람 대책 위원장인 김윤생 목사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헌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가운데 포함된 외국인 난민과 외국인 망명권이 어떤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고영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이슬람 금융인 스쿠크법 수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할랄 푸드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경계하라>는 책을 저술한 이만석 목사는 이슬람을 왜 경계해야 하는가를 폭력성과 거짓을 허용하는 종교라는 시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랄 푸드를 허용할 경우 파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달구고 있는 “Me, Too” 운동을 보면서 이슬람의 여성인권 문제를 생각하지 않



히잡을 쓴 이슬람의 여성들.

을 수 없습니다. 소 윤정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교수는 조혼, 성폭행 면죄부로서의 결혼, 일부다처제, 시아파에서 행해지던 임시결혼 그리고 명예살인과 여성할례, 히잡 등과 관련된 이슬람의 여성인권 문제를 설명합니다.

셋째 주제는 해외 무슬림에 대한 선교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선교문제는 첫째 주제와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짧은 지면서 소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 현지에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하는 두 분의 선교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실명을 밝힐 수 없어가명으로 소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 부터 미국 CRC(Christian Reformed Church) 교단에서 발행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를 연재

합니다. 이 문헌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현재의 사고와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여 살 것인가를 다룬 문서로 한국 교회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재합니다. 이 문헌의 번역은 돌트칼리지(Dordt College)의 심재승(신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